즉시 배포용: 3/5/2015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일광절약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뉴욕시민들에게 졸음 운전을 피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광절약시간이 3월 8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뉴욕 운전자들에게 졸음 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Stay Awake, Stay Alive” 메시지는 Sleep Awareness Week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졸음 운전의 위험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침과 오후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뉴욕주 Thruway, I-87 Northway 및 기타 주요 도로를 따라 게시판에 표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피로와 부주의는 도로에서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비극적 사고들이 뉴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Stay Awake, Stay Alive' 캠페인을 통해 뉴욕의 모든 도로들이 모두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뉴욕시민들이 운전하기 전 졸음에 대한 경고 신호를 의식하기를 촉구합니다.”

2013년, 운전자가 운전 도중 잠이 들어 충돌한 사고는 전국에 3,244건으로 보고되었고 피로/졸음이 기여 요인으로 보고된 사고는 1,228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잠들어서 발생한 사고가 3,399건이고 피로/졸음이 기여 요인으로 인용된 사고가 1,374건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대비 상당한 감소를 나타냅니다.

2004년에 설립된 NYPDD(New York Partnership Against Drowsy Driving)는 졸음 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대중과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예방 전략의 채택을 홍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NYPDD의 구성원으로는 NYS 행정부 산하 교통안전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 뉴욕주 보건 관리국, 고속도로 당국, 뉴욕주 경찰, 자동차 등록부, 뉴욕주 자동차 트럭 협회, 교통 안전부, 뉴욕주 이사 및 창고 협회 및 뉴욕 교통부 소속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졸음 운전의 다양한 대책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졸음 운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 개발, 졸음 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사건 경위 보고서, 뉴욕주 경찰청이 제공하는 교육에 졸음 운전 항목 통합, 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정확한 의료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졸음 운전 예방 포함, 주간 고속도로에 숄더 럼블 스트립에 대한 DOT 및 고속도로 기관 설치가 포함됩니다.

창문 열기, 에어컨 켜기, 음악을 시끄럽게 틀기 등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은 피로를 떨칠 수 없으며, 카페인은 운전자의 정신을 단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졸음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인 대책은 휴식처에 잠시 차를 세우거나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입니다.

주지사의 발표는 National Sleep Awareness Week와 일치합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은 매년 전국에서 경찰에 보고되는 충돌 사고만 1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피로 때문에 발생합니다. NHTSA는 이러한 충돌로 인해 1,550 명의 사망자와 71,000명의 부상자를 낳았으며 매년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은 120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해 충돌 위험이 높은 기타 운전자들로는 상용 트럭 운전사, 어린 아이들의 부모, 치료되지 않은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젊은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뉴욕주 행정부 산하 교통안전위원회(GTSC)에 따르면 16세 ~ 24세 남성 운전자들의 자동차 충돌 사고율은 피로 관련 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NSF의 연례 “Sleep in America”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 중 60%가 졸린 상태로 운전했고 37%가 실제로 운전 중 잠든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졸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불과 몇 초 안에 잠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졸음에 대한 경고 신호로는 초점을 잡기가 어렵다거나,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현상, 의미 없는 공상에 빠지거나 방황하거나 정신을 놓는 행위, 마지막 몇 마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출구를 지나치거나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는 실수, 반복적으로 하품하거나 눈을 문지르는 행위, 머리를 들 수 없을 경우, 차선을 벗어나는 행위, 갑자기 인도 쪽으로 차를 모는 실수, 불안과 짜증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차에 오르기 전 항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두 시간 또는 100마일당 한 번씩 중간에 차를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옆 좌석에 동행을 앉히고 중간에 운전을 서로 교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셔서는 안되며, 항상 졸음에 대한 가능성을 의식하고,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기타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당국 전무 이사 Bob Megna는 “모든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항상 졸음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며 특히 매년 이맘때, 운전자들은 항상 운전 도중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 중 하나이며, 당국은 그런 식으로 도로를 유지하려면 운전자들이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DMV 부행정장 David Sampson은 미달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졸음이나 피로는 매년 수천여 건의 충돌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예방이 가능한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에 따른 시간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운전자들은 피로의 징후를 인식하고 졸음이 오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보건부 국장 Howard Zucker 박사는 “적절한 수면 습관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는 졸음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자신들과 도로 위의 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Joseph A. D’Amico는 “졸음 운전은 과속, 산만 운전 또는 장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피로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운전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졸음 운전은 매년 부상과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모든 운전자들이 피로 증상을 의식하고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기 전에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운전자 안전 팁 및 정보는 DMV 웹 사이트(dmv.ny.gov) 또는 GTSC 웹 사이트(safeny.ny.gov/)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